

통권 제 179호

2562
2018

09

불교 이야기
멸성제 3



계율 이야기
약을 먹되 기한을
넘기지 말라



결망에 담긴 이야기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중



요행과 우연은 본래 없다.

사람들은 현재에 살면서도 미래에 관심이 크며 미래에 정신을 쏟고 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 산다. 물으면 예외없이 모른다고들 한다.

행운이 닥칠는지 단명 할는지, 장수 할는지, 빈천 할는지, 부귀 할는지, 단병 할는지, 건강 할는지, 성공 할는지, 실패 할는지 등등 어찌 될는지 모르고 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짓고 있다.

그러나 또 자기가 지어 놓고도 자기가 모른다.

이는 불교적 인과원칙에서 볼 때 자기가 지은 인을 망각했을 뿐이지

미래의 요행과 우연은 없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남을 원망하거나 의뢰할 것 없이 화복을 독자적 주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에타게 기다린다는 것보다 얼마나 능동적인가 말이다.



살다보면 _ 18

무더위 단상斷想

_ 이옥경



디딤돌 _ 52

창문을 열면

_ 지현



차향기 _ 58

차를 우려내는 법

_ 김정애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2 계율이야기

18 살다보면

24 향유

28 산책

30 십선성취

34 마음의 등불

38 애견 칼럼

42 법향기

48 설화속으로

52 디딤돌

54 영화이야기

58 차향기

62 독자기고

64 특별기고

68 SNS 세상 돌아보기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멸성제 3 _ 화령

그 작은 촛불이 사라지는 순간 _ 오쇼 라즈니쉬

약을 먹되 기한을 넘기지 말라 _ 법경

무더위 단상斷想 _ 이옥경

네게 줄 수 있는 것은 _ 강동현

이별 _ 김대곤

뜻으로 짓는 업 _ 덕현

인생의 즐거운 일 _ 서경덕

살인진지기 _ 권도형

큰딸과 법문 _ 김정남

조리와 속리 1 _ 보현

창문을 열면 _ 지현

신과 함께 _ 혜음

차를 우려내는 법 _ 김정애

허브차 만드는 보살 _ 여순애

어머니 전상서 _ 남익

35년 간의 노숙 생활에서 시인의 꿈을 이룬 라이문도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다 _ 법일

욕망慾望 _ 김재동

백팔번뇌百八煩惱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 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면 사랑과 공경을 익히게 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 무욕을 익히면 그것이 해탈과 열반을 익히게 된다.” 『중아함 참괴경』

부끄러움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고 상처를 입게 된다.”고 부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뒤로 하고 요즈음 성공을 위해서 무삼치(無三恥)를 갖추면 된다는 말이 공공연합니다.

🌸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염치입니다.

염치란 청렴하고 결백하여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점을 살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큰 흐름이 ‘염치 불고형’ 사람이 득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불고는 돌아보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로 즉 염치 불고란 염치를 생각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두 번째는 눈치입니다.

사전에 눈치는 타인의 마음이나 일의 낱새를 알아챌 수 있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보면 눈치의 긍정적인 기능은 말하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읽어 민첩하게 알아

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 스스로 처신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경우 눈치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 세 번째는 재치입니다.

《순발력은 나의 힘》이라는 저서에서 마티아스 켈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치는 문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 상대는 오히려 할 말이 없어지게 되니 변명 없이 인정하는 것이 순발력 있는 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품위 있게 대답할 것과 유머를 살릴 것 등을 재치의 다른 말인 순발력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 선업의 「마음으로 하는 말」중에서

멸성제 3

화령

불교총지중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열반의 종류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은 진리를 자각하고 실천함에 의하여 얻어지는 절대 안온의 경지를 말합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은 니르바나를 한자로 음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반에 대해 아함부의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잡아함경》에서는 열반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위^{無爲}, 구극^{究極}, 무루^{無漏}, 진제^{眞諦}, 괴안^{彼岸}, 미묘^{微妙}, 극난견^{極難見}, 불로^{不老}, 건뢰^{堅牢}, 불괴^{不壞}, 불가설^{不可說}, 불희론^{不戲論}, 무장애^{無障礙}, 적정^{寂靜}, 불사^{不死}, 극묘^{極妙}, 정복^{淨福}, 안온^{安穩}, 애진^{愛盡}, 희유^{稀有}, 미증유^{未曾有}, 무재^{無災}, 무재법^{無災法}, 이것이 열반이라고 선서^{善逝}께서는 말씀하셨다.

경전에서 설한 이러한 열반의 정의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 열반의 정의 가운데에서 먼저 열반을 무위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을 짓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열반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뇌를 일으키는 행위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구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열반보다 더 나은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무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라는 것은 더러운 번뇌를 말합니다. 열반은 그 번뇌가 다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무루라고 한 것입니다.

진제는 열반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뜻입니다. 세간법인 속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열반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피안은 괴로움의 이쪽 언덕에서 안온한 깨달음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뜻인데 열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흔히 도피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열반을 미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훌륭한 것이 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극난건이라는 것은 열반의 경지는 매우 도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불로는 불사와 마찬가지로 늙고 죽음의 경지를 초월해 있다는 뜻입니다.

견뢰라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불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열반의 경지는 견실하여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하고 허물어지는 것은 세간의 유위법이지만, 열반은 견고하여 변함이 없는 무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또 열반을 불가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반의 경지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직접 체득해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설명해줘도 직접 먹어보지 않고는 그 진정한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때의 그 감동을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그 사람은 남이 보았던 그런 광경을 쉽사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열반의 경지도 스스로 체득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회론이라는 것은 헛된 논의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반은 죽어야만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과 지각을 넘어서 세계도 아니고, 단순한 형이상학적 논의의 대상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바른 견해를 지니고 수행을 하면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장애라는 것은 어떠한 구속과 속박에서도 자유자재한 경지가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생로병사를 비롯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절대자유의 경지가 바로 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적정이라는 것은 번뇌의 불길이 다 꺼져서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경지를 말합니다.

불사는 앞에서 말한 불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경지를 이미 초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무명과 헛된 망상에 의해 만들어진 삶과 죽음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여실지견(如實知見)에 의하여 그 실상을 드러냄으로서 윤회를 벗어난 것이 불사의 경지입니다.

감로는 더할 나위 없이 안온하고 편안한 경지라는 의미입니다. 갈애의 불꽃으로 목이 타들어갈 때 시원한 물로 축여주듯이 열반은 더 이상 탐욕과 집착의 갈증이 없는 경지입니다.

극묘라는 말은 극히 미묘한 경지라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하고도 묘한 경지가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정복은 한 점의 번뇌도 없는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간복은 다할 때가 있지만 열반에 의해 누리는 복은 끝이 없으며 가장 뛰어난 복입니다.

안온은 편안하고 흔들림이 없는 경지가 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애진은 애욕이 다한 것이 열반의 경지라는 뜻입니다. 애는 갈애로서 탐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갈애의 밀바탕에는 무명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습시다만, 지혜에 의하여 무명이 멀해지고 탐욕과 집착의 갈애가 다한 경지가 곧 열반입니다.

회유라는 말은 미증유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아주 드물다는 뜻입니다. 열반의 경지는 누구나 쉽사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열반은 부처님만이 증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중생들의 무명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열반의 경지는 부처님처럼 지혜를 지니신 분에게나 가능한 드문 일일뿐 더러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일찍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미증유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열반을 무재라고 한 것은 모든 재난이 없는 경지가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은 생로병사와 온갖 괴로움을 벗어났고 더 이상 업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도 더 이상 닥치지 않습니다. 모든 괴로움을 초월했기 때문에 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초월한 경지를 드러낸 것이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러한 열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 열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열반의 경지는 말로도 나타낼 수 없고 지극히 미묘하며 증득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형이상학적인 헛된 논의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명을 제거하고 탐진치의 불꽃을 남김없이 끄는 것에 의하여 도달되어지는 열반은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을 초월하여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은 결코 죽어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회신멸지(灰身滅智)의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자각하고 실천함에 의하여 얻어지는 절대 안온의 경지입니다. 1



그 작은 촛불이 사라지는 순간

오쇼 라즈니쉬
작가
전 대학교수



니르바나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촛불을 불어 끈다.’는 뜻이다.
그것은 마음의 소멸이다.

타고르의 부친은 매우 부유한 영주였다. 그는 작은 나룻배를 타고
영지 한가운데로 흐르는 아름다운 강 위에서 몇 달씩 살곤 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는 나룻배 안에 작은 촛불을 켜놓고
크로체가 쓴 중요한 미학논문을 읽고 있었다.
밤이 깊은 시각에 크로체의 난해한 이론에 지친 그는
책을 덮고 촛불을 불어 꺾다.

그는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 작은 촛불이 사라지는 순간
나룻배의 모든 문과 창문으로부터 달빛이 춤추며 흘러들어 왔다.
달빛이 나룻배 안을 환한 광채로 가득 채웠다.

“아름다움이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촛불이 그 아름다움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것이 니르바나의 정확한 의미이다.
그대 예고의 작은 불빛이
마음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의식의 작은 촛불이
전 우주가 그대 안으로 돌진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오직 무심만이 니르바나와 동격이 될 수 있다.
무심은 니르바나에 이를 필요가 없다.
무심이 바로 니르바나이다.

마음이 세상이고 무심은 그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마음은 불행이다.
그리고 무심은 불행의 끝이며 환희의 시작이다. ♣

약을 먹되 기한을 넘기지 말라

법경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청정한 계율 _ 40

승가의 청결과 위생관리

율장에는 청결과 위생에 대한 내용들이 의·식·주의 승가생활 전반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 비구·비구니의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승가의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의복(衣服)과 침구(寢具) 관리, 치병(治病)과 약식(藥食), 음식 관리, 주거지에서의 청결과 위생, 가재도구 등의 정리정돈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내용은 개인과 승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승가에서의 생활규범 가운데 청결과 위생관리는 세속(世俗) 재가자(在家者)의 청결 위생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 특성에는 위의(威儀)와 정행(淨行) 등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청결과 위생에 대한 문제는 출가자의 자격요건과도 직결된다. 이를 차법(差法)이라 하는데 출가를 막는 법이다. 아무나 출가할 수 없다는 법이다.

청결과 위생의 차법은 승가 공동체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건강관리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승가에서의 청결과 위생관리는 승가 구성원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을 예방하고, 출가자의 위의를 갖추는 길이며, 대중의 공중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승가의 안락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출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승가에서의 청결과 위생관리는 수행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건강과 출가수행자의 위의로서 중요한 수행덕목이라 할 수 있으며, 승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는 승가의 안녕과 안락, 질서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목이라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약식藥食과 관련된 계율이다. 대표적인 계율이 ‘약을 먹되 기한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아마도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도 처방 받은 약을 오랫동안 두면 변질되어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볼 때, 약의 복용에 대한 문제는 지금이나 부처님 당시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약식藥食과 관련된 계율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약식藥食이다. 출가자가 먹는 모든 음식은 약藥과 동일시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를 약식藥食이라 하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므로 비시약非時藥이라고도 부른다.

약식은 치병治病을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다양한 약과 치료법이 전해진다. 특히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석존은 약을 복용할 것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약을 그냥 복용하면 세속 사람들이 비구를 향해 ‘청정하지

못하다’ ‘사문답지 못하다’는 비난하므로 항상 밥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였다. 비구들이 병이 났을 때 약을 먹는 것을 밥을 먹는 것과 겸하여 복용하라 하였고, 정오가 지나 밥은 먹을 수 없지만 때가 지났더라도 약은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였다. 『사분율』권제10에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음주와 육식도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금지된 음식도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는 먹을 수 있게 하였다. 마늘이 그 예다. 단지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라고 제한하고 있다.

축칠일약과한계畜七日藥過限戒

그런데 치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을 받아서 7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가지 사타법捨墮法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 계율이 사타법 제26조의 ‘축칠일약과한계畜七日藥過限戒’이다. 칠일을 넘겨 약을 보관하지 말라는 계다. 그러나 약을 먹되 왜 7일을 넘기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마도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약이나 식품 등에 유효기간이 적시되어 있음을 볼 때 석존도 이미 약품의 유효기간을 언급한 것이라 생각된다.



축칠일약과한계畜七日藥過限戒의 인연담

약을 먹되 7일을 넘기지 말라는 계율이 제정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계실 때 비구 필롱가바차가 세속의 아는 권속과 친지들로부터 소락과 기름, 생소, 엿 등의 여러 가지 공양물을 받아 약으로 복용하기 위하여 큰 독과 작은 독, 광주리, 큰 바루, 작은 바루, 실 주머니, 물 주머니 속에 가득 가득 채워 보관하여 두었다. 말뚝이나 갈구리 위에다 올려 놓거나 문틈 여기 저기에 달아 두었는데, 며칠이 지나자 물이 질질 흘러 내리므로 냄새가 많이 났다. 거사들이 절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비구들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마치 국왕의 창고와 같이 잔뜩 쌓아 놓았다’고 비난하였다.

이 소문을 들으시고 석존은 그들을 불러 확인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가 병이 났을 때 소락, 기름, 생소, 꿀, 엿 등을 남겨서 7일까지는 먹을 수 있으나 7일이 지나서 먹으면 사타죄가 되느니라.” 하셨다.

이와 같이 석존은 승가 구성원들의 청결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약의

복용에 대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는 승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계율을 제정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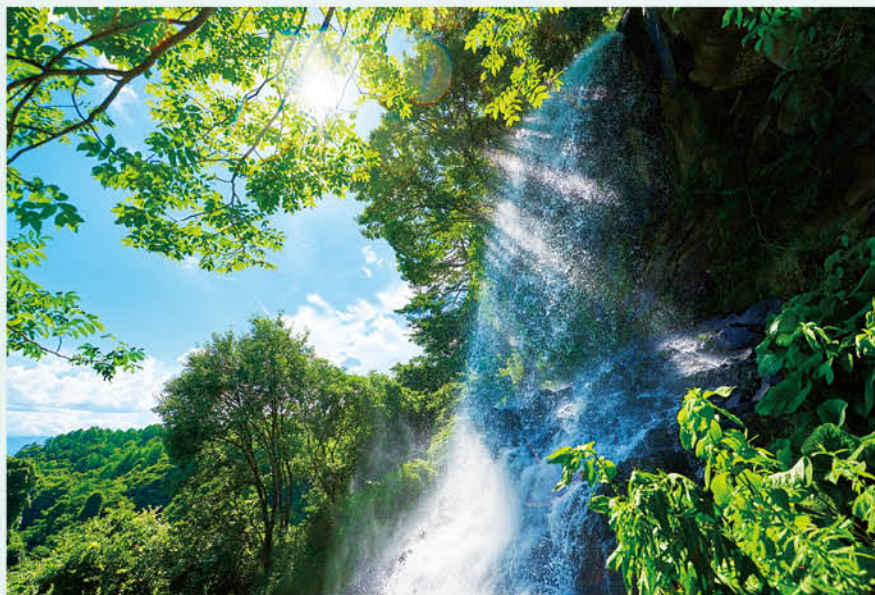


다음 호에서는 '바일제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재난 수준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111년만의 최강 폭염이라고 한다. 8월 초 최고기온이 서울 강북 41.8℃, 횡성 41.3℃, 홍천 41℃, 춘천 40.6℃, 의성 40.4℃, 원주 40.3℃ 등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40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아서 포르투갈과 아테네도 47~48℃를 오르내리고 미국, 중동, 인도에서도 50℃를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다.

급기야 나도 인터넷에서 에어컨 사양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대단한 환경운동가도 아니면서 나만이라도 에너지 절약과 지구 지키기에 나서겠노라 입방정을 떨면서, 남들이 더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도 여름은 여름다워야~ 하며 선풍기도 몇 번 돌리지 않고 여름을 나곤 했었다. 여름이니 더운 것도, 더우니 땀 흘리는 것도 당연한 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에 절대 공감, 뜨거운 태양도 계절의 축복이라 여겨왔던 터라 올해도 태무심했었다. 더워서 죽네 사네, 입맛이 있네 없네 하는 아우성을 들을 때마다 그래봤자 한 달만 비비면 될 일을 가지고 유난스럽기도 하다, 속으로 혀를 차기도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당치 않은 오만인지 온 몸으로 깨우치게 됐으니. 휴가철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7말8초(七末八初)(7월 말, 8월 초)의 위력은 대단했다. 피서의 절정이 무더위의 최고점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온 사방이 무섭게 달아올랐다.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7월 마지막 주말은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그러나, 8월 첫 번째 주말의 더위는 상상 이상이었다. 강렬한 햇볕과 펄펄 끓는 땅, 숨통을 턱턱 막는 뜨거운 공기가 마치 탈출 불가능한 거대한 사우나에 갇힌 것 같은 절망감마저 불러일으켰다.

시원한 사무실이 어찌나 그리던지. 이틀이라는 시간은 또 어찌나 더디가던지.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바다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

인가. 살갓을 벗길 듯 맹렬하게 쏟아지는 햇빛 속으로 나설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재不在나 결여缺如에서 비로소 그것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가공可作할 만한 폭염과 마주하게 되니 아스라이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하나 없이도 마냥 시원하고 즐겁기만 했던 전설 같은 추억들이 말이다.



우리 동네에 때 아닌 춤바람이 일었던 그 여름. 서울에서 다니러 왔다는 앞집 친척 언니는 저녁 어스름이면 ‘야전(야외전축)’이라는 네모 반듯한 기계에 동그란 판을 올려놓고 춤판을 벌였다. 춤이라고 해야 아리랑 가락에 맞춰 팔을 흔드는 게 다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머리채며 온 몸을 뒤흔드는 춤사위라니.

앞집 마당은 이상아릇한 춤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넘쳐났다. 나이 든 어른들은 면구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연신 헛기침을 하거나 부채를 활활 부쳐댔고, 흥이 많은 이들은 옥수수 하모니카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골목 으스스한 곳에서 잔뜩 혀를 굴려가며 “울리불리~ 울리불리~” 하면서 고고춤 삼매경에 빠졌던 오빠들 중 두어 명은 고향 지킴이로 늙어가고 있다.

논으로 흘러드는 작은 도랑 옆에 있는 우리 작은집은 나를 포함한 사촌들의 놀이터였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작은집으로 몰려가 족대며, 반두를 찾아들고 미꾸라지 잡이에 나섰다. 도랑 옆 풀이 무성한 곳에 족대나 반두를 대고 발로 꺾꺾 누르면 그 안에 미꾸라지가 몇 마리씩 올라오곤 했다. 잡은 미꾸라지는 어린 동생들이 들고 다니는 커다란 주전자에 풍당! 고무신이 벗겨지는 바람에 주전자를 엮는 대형사고가 일어난 날은 부엌에 걸려있던 고운채까지 죄다 들고 나와 도랑을 누볐다.

채 밑을 다 빠뜨려 왔다고 작은엄마한테 호된 야단을 맞기도 했지만, 작은 품로 숯불에 구워먹었던 미꾸라지는 맛이 아닌, 오사바사한 재미로 남아 아직도 나를 웃음 짓게 한다.

강은 또 하나의 놀이터였다. 아이들은 개혜엄(자유형)이나 개구리 혜엄(평영), 물속(잠수)으로 강을 건너다녔지만 그나마도 못하는 나는 땅 짚고 물장구치기가 고작이었다. 강기슭 풀숲을 뒤져 산딸기를 따먹기도 하고, 꿀풀의 꽃을 따서 꿀을 쪽쪽 빨아먹기도 했다. 어찌다 운이 좋은 날이면, 천렵을 나온 어른들에게 이끌려가 생선 매운탕을 얻어먹기도 했다. 부끄러워 쭈뼛거리는 아이들의 그릇에 생선이며 수제비를 듬뿍듬뿍 얹어주며 네가 누구 딸이구나, 너는 누구 딸이고, 하며 웃으시더니….

가난하던 시절이라 끼니를 거르는 집도 많았다. 해가 긴 여름날이면 우리 집도 밥 대신 국죽을 먹는 날이 많았다. 국죽은 고추장 국물에 나물이나 푸성귀를 넣고 국수나 밀가루반죽을 함께 넣어 끓이는 강원도 음식이다. 우리 집에는 매일이다시피 사촌들이 들끓었고, 들쭉날쭉한 객식구를 치르기에는 국죽 만한 음식도 없었다. 마당 가 화덕에 커다란 양은솥을 내걸고, 입이 늘어난 만큼 국물도 더, 밀가루반죽도 더 질척하게... 아, 그리고 보니 엄마는 국죽을 끓일 때처럼 풀 먹인 이불호청을 다듬이질 할 때도, 이글거리는 숯불 다리미로 다림질을 할 때도 이마에 굵은 땀방울을 달고 사셨구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멍석에 누워 바라보는 밤하늘에는 크기도, 밝기도 다른 별이 모래를 흩뿌려 놓은 듯 촘촘했다. 그 별처럼 반딧불이가 날고, 때 이른 귀뚜라미 소리에, 바람결에 실려 오는 꽃향기에, 모깃불에서 풍기는 쭉 냄새에, 잠 속에서 아련하게 멀어지는 이야기 소리에..., 손톱에 들인 봉숭아 꽃물과 함께 내 유년의 여름은 그렇게 깊어져 아름다운 동화가 되었다.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뜨겁지만 견딜만했던, 무더위조차도 즐겁던 그런 여름날이. 순리에 순응하며 살았던 그 시절 그 마음처럼 소박한 시간,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소비와 소유, 물질



만능의 달콤함에서 벗어나 불편을 감수하며 절제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 이른 이 폭염이야말로 편리를 좇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버리고 깨뜨렸던 많은 것들이 보내는 경고는 아닐는지. 가진 것 없이 모두 소유한 삼매의 경지라는 무소유처(無所有處)까지야 바라겠나만, 무소유를 우리네 속인의 삶에다 비추어 보면 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길이 보일 것도 같다.

이대로 간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온도가 섭씨 2℃ 높아져 올해와 같은 폭염은 물론 한파, 폭우, 냉해 등 극심한 기후변화가 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하니... 어쩐다? 에어컨을 사, 말아? 언행일치도 참 따나는 일이다. ♣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강동현
관성사 교도



텔레비전을 보던 엄마가 밖으로 나와서 방금 텔레비전에서 나온 몸
에 좋은 음식을 말씀하신다. 오래된 필체로 꼼꼼히 적어 놓으신 것도
보여주신다. 엄마는 자식들한테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 굉장한 집중력
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해내신다. 몸에 좋은 식품을 공부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매
끼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하시고 요리를 개발해내기도 하신
다. 참 많은 것을 하시면서도 늘

“내가 너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더 있겠나.”
이렇게 말씀하신다.

엄마의 기도는 내가 잘 알고 있다. 자식들 위해서 49일 불공을 내내
하시고, 자식들 잘 된다면 무엇이든 해 내겠다고 절에 공양주도 몇 년
동안 하셨다. 연세가 있으시니 그만 쉬라고 하셔도 자식들을 위해서
가난한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무엇이든 하
신다. 지금도 자식들을 위해서 불공하시고 자식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기도를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또, 다른 사람을 위
한 봉사를 하러 다니신다. 나도 부모가 되어 보니 자식을 위해서 무엇
이든지 할 수 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을 알 것도 같다. 엄마가 서원당
청소를 자청해서 하실 때는 자식을 위해서 닦는다 생각하고 닦으시고
화장실 청소를 하실 때는 자식들 앞길을 깨끗하게 한다는 심정으로
기쁘게 하셨다고 했다. 길에 뽕죽한 못이 달린 나무토막을 보면 사람
들이 안 다치게 한갓진 곳에 옮겨 놓으시고 거리에 쓰레기도 일부러
주우러 다니신다. 금요일마다 우리 아파트에 땅콩을 팔러 오는 노점
상 하는 젊은 총각에게 점심을 대접하고도 “내 자식 같아서”이고, 택
배 일 하는 젊은이도 밥 때가 되면 불러서 밥을 먹이시며 “내 자식 같
아서.” 말씀하신다. 걸으면서도 ‘옴마니반메흠’하시고 놀랄 때도 ‘옴마
니반메흠’이고 감탄사도 다 진언이시다. 처처불공 사사불공을 실천하
고 계시는 엄마다.

“그래도, 내가 부처님 덕을 많이 봤다. 아는 것도 없고, 매달릴 데가
없어서 맨날 부처님 살려 주세요. 그리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부처님
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지. 그리고 다 이뤄졌으니
부처님 덕 본거 맞지.” 하신다. 나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공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하 시던 방식으로 굿은 일을 좀 해보려고 해도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고 있으니 끼어들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예전에 남편 근무지를 따라 이사를 한 곳에서의 일이다. 근처에 서원당이 없어서 불공비만 보내고는 가까운 사찰에 다니게 되었는데, 법당 청소도 누군가 하고 있었고, 화장실 청소도 누군가 하고 있었고, 법당에서 재가 있는 날이면 보살들이 몰려와서 많은 일을 하곤 했는데 다 자기 맡은 소임들이 있었다. 나는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소임자가 못 오게 되었는지 어떤 보살이 나보고 재* 지내는 과일을 꺾는데 동참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뭐 할 줄 아는 것은 없지만 해보겠다고 했다. 그 때 이후로 그 보살은 가끔씩 나한테 일을 맡기곤 했다. 일을 시키면서도 그 일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지 말해 주었고, 그 소임을 맡은 보살들이 어떤 염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도 알려 주었다. 법당 청소를 시킬 때도 있었고 법당에 있는 눅눅한 방석을 벌이 좋은 날 말리고 막대기로 팡팡 터는 것도 시키고 어떤 날에는 마당에 풀을 뽑기도 시켰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보살들의 염원과 공덕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애기 보살님도 원하는 염원이 있어요?” 하고 물어 보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맡은 그 일을 다 해냈다. 하면서 기도하고 진언도 속으로 외면서 기쁘게 했다. 공양처에서 설거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을

떠나야 했다. 그래도 화장실 청소나 더 굿은 일은 하지도 못하고 이사를 왔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일은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았다.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공덕을 쌓으려고 남한테 안 미뤄줬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공덕을 쌓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한 일이지는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봉사하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누군가 굿은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은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자식을 위해서건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건 내 엄마가 했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아는 선배 언니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절에 있는 향로를 닦는 일에 자청했고, 돈을 따로 모아 자식들 나이의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다. 또, 언니는 “부처님 전에 올릴 꽃을 꽃꽂이 하면 자식들한테 좋다는데 너 꽃꽂이 할 줄 아냐?”고 전화를 해왔다. 아... 꽃꽂이는 못 배웠다. 다음 달부터 꽃꽂이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다니는 서원당에 꽃꽂이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보살님들이 소임을 맡고 있다면 또 하염없이 실력을 가다듬으면서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기서는 오래오래 이사 가지 않고 살 수 있으니 언젠가는 그런 행운이 나한테까지 올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기도이고 봉사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것이 불공이고 어떤 것도 불공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우리 엄마 같은 보살님들이 많으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천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

얼마나 많은 가슴들이
쓰리게 아파했는지

밤하늘
헤아릴 수 없는 못다 이룬 사연이
꽃처럼 흔들린다.

한 번이라도
이별의 스치움에
놀란 가슴이라면

질은 어둠에 흐르는 바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며
지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오늘밤도
이별은 지나간다.
말없이…….

뜻으로 짓는 업

덕현
법천사 전수



뜻으로 짓는 업에는 탐욕^{貪慾}·진에^{瞋恚}·치심^{癡心}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십선업도경』에 탐욕^{貪慾}·진에^{瞋恚}·치심^{癡心}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탐욕^{貪慾}은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남의 재물이나 물건을 탐내는 마음입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마음이 자재^{自在}하고, 육근^{六根}이 온전해지며, 항상 배푸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을 여의기 위해 부처님께서 보시행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종단의 ‘십선회향’에도 ‘탐심중죄·지심참회·보시공덕·금일성취’라고 하였습니다. 탐욕심으로 지은 큰 죄를 지심으로 참회하고 보시의 공덕을 금일에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탐욕심을 버리는 데는 보시만한 실천이 없다고 봅니다.

진에^{瞋恚}는 성내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내는 마음은 또다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내는 마음은 이전에 닦아 놓은 선업공덕을 일시에 불태워 버린다고 합니다.

공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진에를 없애면 그것이 곧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다투려는 마음이 사라지며 부드럽고 인자한 마음을 얻게 되고 중생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종단의 ‘십선회향’에도 ‘진심중죄·지심참회·환회공덕·금일성취’라고 하였습니다. 진에심으로 지은 큰 죄를 지심으로 참회하고 환회심의 공덕을 금일에 성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환회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화를 다스리면 수행이 깊어지고, 환회한 마음을 가지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치심(慙心)은 경전에서 사견(邪見)이라고도 합니다.

치심은 어리석은 것이고, 사견은 삿된 생각·그릇된 생각입니다. 삿된 생각은 어리석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전에서 치심을 없애면 바른 뜻이 일어나고, 인과를 깊이 깨달으며,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끝내 악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부처님께 귀의하고 수행과 계행을 지킨다고 합니다. 바르고 끝은 마음을 갖게 되고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치심과 사견의 반대어는 지혜(智慧)와 정견(正見)입니다. 지혜와 정견은 부처님의 지혜이며 바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의 '십선회향'에는 '치심중죄·지심참회·지혜공덕·금일성취'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은 큰 죄를 지심으로 참회하고 지혜의 공덕을 금일에 성취하겠다는 맹서입니다. 바른 지혜를 가지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한량없는 복덕이 증장한다고 합니다.

치심과 사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혜를 증득해야 하는데,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실천하면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늘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내 것이 아닌데 욕심을 내거나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매사에 조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이 탐욕·진에·치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 한참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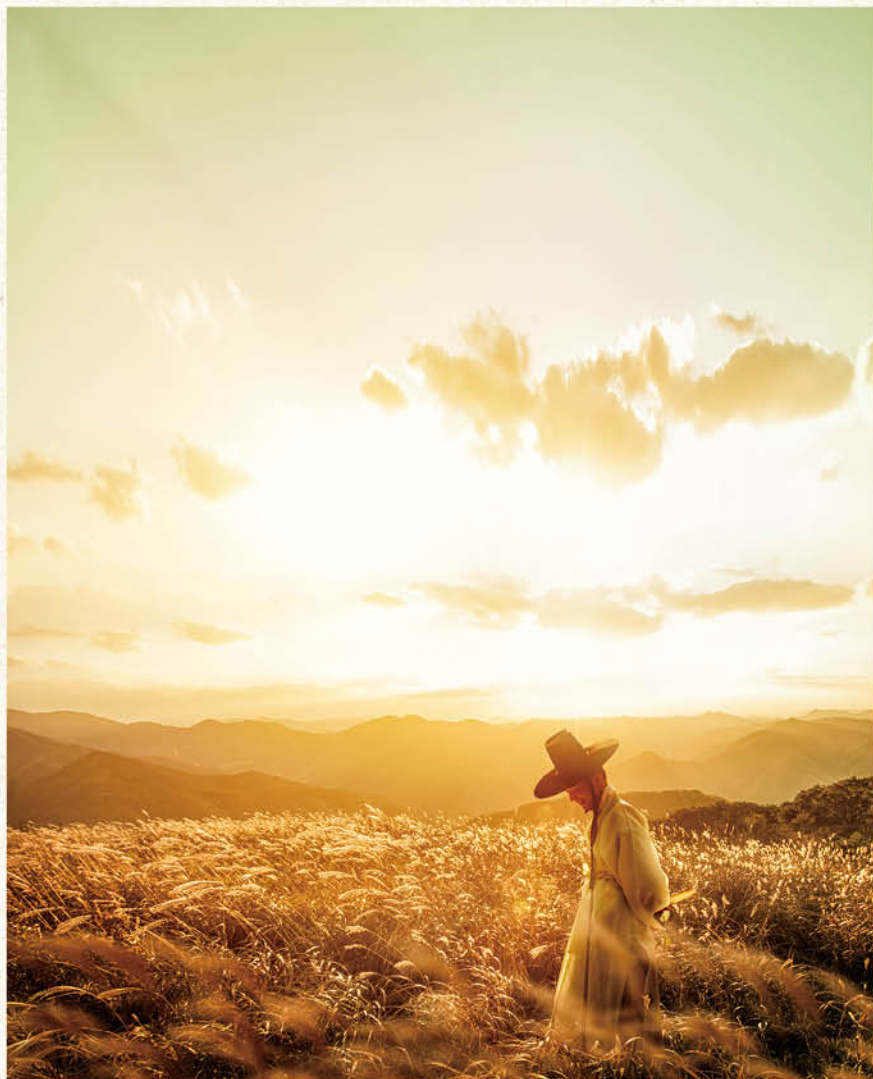
내 마음속에 탐욕·진에·치심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몸으로 하는 행동이 항상 바르면, 그 사람은 십선계(十善戒)를 잘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선(十善)을 잘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생의 즐거움 일

서경덕(徐敬德)
조선 전기 성리학자



讀書當日志經綸
晚歲還甘顏氏貧
富貴有爭難下手
林泉無禁可安身
採山釣水堪充腹
詠月吟風足暢神
學到不疑知快活
免教虛作百年人

독서당일지경륜
만세환감안씨빈
부귀유쟁난하수
임천무금가안신
채산조수감충복
영월음풍족창신
학도불의지쾌활
면교허작백년인

글 읽던 당일에는 경륜에 뜻을 두었더니
늘그막엔 되레 안회(顔回)의 가난을 즐기노라
부귀는 다툼 있어 손을 대기 어렵지만
강산이야 막는 이 없으니 몸을 쉴 만하다네
나물 캐고 고기 낚으면 배를 채울 수 있거니와
달을 읊고 바람 읊으면 정신 활짝 퍼진다고
의문 다 깨치고 나면 마음이 쾌활해져서
헛되이 백 년 인생 사는 것을 면하리라

- 서경덕(徐敬德, 1489~1546), 『화담집(花潭集)』 권1

조선 중기 퇴계(退溪, 1501~1570)와 율곡(栗谷, 1536~1584)에 의해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기 조금 앞서 태어난 화담(花潭) 서경덕이 지은 <술회(述懷)>라는 시이다. 주돈이(周敦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정호(程顥), 정이(程頤)로 대표되는 북송(北宋)의 성리학을 주희(朱熹)가 집대성하여 하나의 체계로 구

성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희의 학문을 진실하게 믿고 그 바탕에서 사유를 전개한 퇴계와 달리 화담은 세상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懷疑}를 품고 기성의 학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이처럼 자득^{自得}을 중시하는 학문 태도를 바탕으로 화담은 주자학보다는 소옹의 상수역학^{象數易學}과 장재의 태허^{太虛}에 바탕한 우주론을 탐구하는 데 더 열정을 기울였다.

이 시와 관련하여 정유일^{鄭維一}(1533~1576)은 당시 사림^{士林}의 선배였던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1478~1543)이 화담에게 출사^{出仕}를 권유하였을 때 화담이 이 시를 지어 사양한 것이라고 하였다. 은거^{隱居}하여 학문^{學問}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시 한 수에 잘 담아내었기에 시를 받은 모재가 무릎을 치며 더 이상 화담에게 강권하기 힘들었을 듯하다. 특히 세인^{世人}들이 욕망하는 부귀^{富貴}는 다툼이 있기 마련이라 차지하기 어렵지만 주인 없는 임천^{林泉}은 금하는 이 없기에 몸을 보존할 만하다고 노래한 함련^{涵鍊}은 상투적인 듯하면서도 부귀와 임천의 대구^{對句}가 묘하게 어우러져 화담의 견결^{堅決}한 인생 지향을 잘 보여준다. 나물 캐고 고기 낚아 생계를 삼는 촌부^{村夫}이자,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을 노래하는 시인^{詩人}으로 사는 것이 바로 화담이 꿈꾸는 일상^{日常}이다. 하지만 이렇게 소박한 일상을 사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도 엇매이지 않는 자리에서 학문을 탐구하려는 데 있기에 의문을 해소하였을 때 찾아오는 쾌활함을 미련^{尾端}에서 말하였다. 정유일은 이 시를 통해 화담의 흥회^{興懷}가 매우 쾌활함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쾌활함이란 지

적 희열과 일맥상통할 듯하다.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면 발분^{發憤}하여 끼니도 잊고, 의문을 해소하면 즐거워 근심을 잊고 늙음이 이르는 것도 모르셨다던 공자^{孔子}의 학문하는 즐거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정유일 외에도 이제신^{李齊臣}(1536~1583)과 신흘^{申翥}(1566~1628) 역시 화담을 논하면서 특별히 이 시를 인용하였고, 화담처럼 은거하며 뜻을 길렀던 남명^{南冥} 조식^{趙植}(1501~1572)은 이 시의 운자로 차운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 시가 화담의 본령^{本領}을 잘 표현한 것으로 여겨져서인 듯하다. 다만 이식^{李植}(1584~1647)은 송화수^{宋華壽}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어 자신의 서재에 걸어놓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아마도 이식이 학문 성향이 다른 화담의 문장을 보지 않은 데서 생긴 잘못이 아닌가 한다. 1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팀 변구일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살인진드기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여러분들은 ‘살인진드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살인진드기’에 물리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일으키지만, 원인을 찾아보면 반려견들도 절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진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인진드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혈소판 감소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지닌 ‘작은소참진드기’를 일명 ‘살인진드기’라고 부른답니다. 작은소참진드기는 주로 들판이나 풀숲 등 야외에 서식하는데, 작은소참진드기 전체의 0.5%만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진드기가 다 질병을 유발하진 않지만, 어느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소참진드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항온동물에는 모두 기생할 수 있고, 반려견들에게서도 흔하게 기생하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욱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작은소참진드기’는 초봄에서 늦가을까지 아주 활동적이고, 풀줄기에 몰래 붙어 있다가 숙주가 지나치면 빠르게 옮겨 붙기에, 잠시라도 풀밭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진드기는 꼭 산이나 들쪽으로 가야만 감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변 화단에서만 산책하는 강아지들도 진드기감염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밖에서 산책을 하는 반려견의 경우 진드기 예방을 꼭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에 감염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나 반려견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가벼운 감기증상을 보이다 자연

회복되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1~2주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바이러스의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발열, 식욕부진, 구토, 설사(특히 혈액성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여나 반려견과의 산책 후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셨거나, 갑작스러운 기력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은 감염된 이후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백신 또한 없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경우 야외활동을 하실 때에 곤충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진드기 예방약'을 주기적으로 먹여주시거나, 피부에 발라주시는 약품을 선택하여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반려견에게 사용 가능한 '진드기 예방약'은 진드기나 여러 곤충들이 들러붙지 않게 하는 '기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드기를 사멸시킬 수 있는 약이 피부 전체적으로 퍼져있으면서 진드기가 붙은 후 흡혈하는 과정에서 약도 같이 흡입하게 되고, 사멸한다는 것입니다. '진드기 예방약'을 사용했는데도 산책만

다녀오면 진드기가 붙어있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약효는 진드기가 흡혈하는 과정에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강아지용 진드기 약은 효과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아드립니다.

최근 부산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으로 사망한 80대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환자가 기르던 반려견에서 SFTS 항체가 검출되었다는 것이죠. 사람환자와 비슷한 시기에 반려견도 감염됐음을 시사하는 결과지만, 개에서 사람으로 전염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환자가 평소 반려견과 집주변을 산책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야외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기에 반려견에 붙어있던 참진드기에 사람이 물렸을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진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과 나아가서는 나의 목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드기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수의사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진드기 예방을 시작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



제가 정각사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저의 큰딸 때문입니다. 큰딸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많았고, 어미로서 그 모든 것을 해주기가 힘이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딸이 제게 빚을 받으려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불공을 하면서 지혜와 평안을 많이 얻어 결국에는 큰딸도 저도, 둘 다 흡족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

니다. 특히 딸의 불공을 하면서 저는 인상적이고 특이한 법문을 여럿 만났는데, 오늘은 그 법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큰딸은 처음부터 남들이 다 알아주는 대기업에 곧장 취직을 하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다닐 줄만 알았던 딸이 2년을 채우지 못한 어느 날,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둬야겠어.”

놀란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사람들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딸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초기에는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고 펍 즐겨워하기에 당분간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다음의 취직이 잘 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흐르자 조금해졌습니다. 딸은 딸대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히스테리를 부리다가도, 어느 때는 세상 태평하게 빈둥거리고 있으니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 혼자 불공을 하는 걸로는 되지 않을 성 싶었습니다. 거실에 너무러져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랑 절에 한 번 가보자.”

처음에는 껌등으로만 듣고 별 대답도 잘 안 해주었지만, 여러 번 마음을 다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한 끝에 한번 가보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딸과 함께 절에 가기 전에도 저 혼자 집에서 불공을 한 다음 집을

나셨습니다. 다행히 절이 괜찮았는지, 스스로 자성일도 잘 지키고 합창단에도 들어갔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은 백 번 천 번 고마운 일이었지만, 여전히 새 직장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에 속이 탔습니다. 고민 끝에 전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불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의 끝나기 직전인 토요일 밤 아주 특이한 꿈을 꿔했습니다.

망망대해에 배 하나가 홀연히 떠있었는데, 대여섯 살로 보이는 남자 아이가 배 앞에 서 있었고, 뱃머리에는 같은 또래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이게 법문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문에 익숙하지 않은지라 이게 좋은 법문인지, 좋지 않은 법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리송한 마음으로 다음 날의 불공을 마친 후, 일요일 밤에도 법문인 게 틀림없다고 여겨지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펄펄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눈인 듯 했으나 눈은 아니었고, 종이학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땅 위로는 하얀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하늘에서는 하얀 것들이 하염없이 내려오는, 이상하고도 예쁜 광경이었습니다. 신기한 법문이라고, 꿈속에서도 생각하면서 날이 밝자마자 스승님을 찾아가 여쭙어보았습니다. 스승님은 은근하게 웃으면서 가만히 기다려보라고 말했습니다.

불공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내일 면접 보러 가.”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더 유명하고 큰 회사에서 일차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곱씹어보면 이전의 법문 같은 꿈을 꾸었을 때가 딸이 서류전형을 준비하고 있을 즈음이었었습니다. 일차 합격이라는 말에 무척 떨렸지만 태연한 척, 잘하고 오라는 말을 건네고 열심히 염주를 돌렸습니다. 면접을 마친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좀 불안해.”

“왜, 무슨 일인데?”

“경력자로 다섯 명밖에 안 뽑는데, 면접에는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 내가 그 다섯 안에 들 수 있을까?”

딸의 말마따나 경쟁률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있지, 신기한 일이 있었어.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내 구두 앞코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살포시 앉았다가 날아간 거 있지.”

딸아이가 겪은 나비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쿵덕쿵덕 뛰었습니다. 딸애가 면접을 치를 시간 동안 불공을 하다가 잠깐 꿈도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덩치의 코끼리가 뒤통뒤통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코끼리의 앞모습이 무척 보고 싶었지만 코끼리는

방향을 틀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코끼리의 얼굴은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그 덩치와 무게에 압도당했던 꿈이었습니다. 저는 면접시간에도 부처님 바짓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불공을 했고, 꿈을 꾸 다음에는 오래 전 어디선가 부처님과 코끼리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면접 결과에 대해 걱정을 하는 딸에게 일단은 집으로 돌아오라고 다독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든 꿈과 법문이 매우 긍정적인 것만 같았지만 복이 달아날까,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데 또 다른 법문이 도착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꽃이 만발인 산에 오르는 꿈이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들 사이로 다섯 마리의 하얀 양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꿈을 꾸면서도, 딸에게 좋은 소식이 가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채 되지 않았을 때, 본사에서 최종합격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딸과 문제가 생기고, 딸의 인생에 좋지 않은 기미가 보일 때마다 딸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팠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공을 할수록 엉켰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듯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니 사는 게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법문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건지 알쏭달쏭하기도 했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과연 진기하면서도 소중

한 체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안 될 일도 없고, 이루지 못할 일도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달았고, 그 깨달음 앞에는 늘 법문이 있었습니다. 거미줄 같은 인생살이에 지친 보살님들이 있다면, 마음을 기울여 불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내 법문과 함께 해결책을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조리와 속리 1

보현

실보사 전수



과거불가설 아승지집 전 먼 옛날에 남인도 마열바질 나라에 장나라는 장자가 있었다. 그는 마나사라라는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금실도 좋게 살았다. 그러나 그들에겐 슬하에 자식이 없어 적적함과 아쉬움을 탄식하였다. 그래서 항상 천신에게 기도하며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 간절함이 천신에게 닿은 것일까 마나사라 부인은 잉태를 하였고 달과 같고 옥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행복에 겨워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들은 3년 뒤 아들을 한 명 더 낳았다. 그 기쁨이 두 배가 되어 네 식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스러웠다.

장자는 바라문 관상가에게 두 아들의 장래를 물어보았고 두 아들의 관상을 살펴 본 바라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두 아이는 용모가 단

정하고 여러 가지 묘한 실상을 갖추었으나 부모와의 인연이 박해서 어려서 부모를 여의게 될 운명입니다.” 장자는 아이들의 미래가 슬펐으나 그럴수록 그들을 더욱 사랑할 것을 다짐하였고 형을 조리, 동생을 속리라고 이름을 지어 아이들을 더 귀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행복에는 대가가 있는 것인지 세월이 지나 형 조리가 8살, 동생 속리가 5살이 되던 해에 마나사라 부인에게 갑작스레 병이 찾아왔다. 병세는 점점 깊어지더니 온갖 좋은 백약을 구하여 가족이 모두 부인의 간병을 했으나 효험이 없었다. 자신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없자 부인은 두 아들을 불러 어린 아들 형제의 손을 잡고 눈물을 적시며 말하였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니 죽음이 무서울 건 없다마는 어린 너희들을 남겨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구나. 그러나 우리들 운명이 그런 것이라면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너희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의종게 지내고 남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린 형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트렸고 망연자실 장자 또한 싸늘히 식어가는 아내를 붙들고 통곡해 마지않았다.

삼칠일이 지나 49일도 지나고 백일도 지나게 되었고 더 많은 나날이 흘러 세부자의 안타까운 모습에 장자의 친구들이 살림을 맡아서 할 새로운 배우자로 근방에 사는 비라장자의 딸을 주선했다. 그녀는 용모와 자태가 죽은 마나사라 부인과 많이 닮았으므로 아이들은 그를 친어머니처럼 잘 따랐고 후처도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거두어 장자집안은 한동안의 슬픔이 가시고 새로운 평온을 되찾아 단란하게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어 들판의 곡식이 모두 말라 죽자 양식이 떨어져 온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 장자는 이웃나라에 가서 식량을 무역해 오지 않으면 너나할 것 없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아들과 아내를 남겨 둔 채 먼 나라로 곡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다. 후처가 지금까지처럼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장자는 마음놓고 떠날 수 있었다. 후처와 아이들도 잘 지내겠다라며 아버지를 안심시켜주었다.

장자가 떠나고 며칠이 몇 달이 되어 갈 무렵 후처는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아이들에게 생모나 다름없이 보살피 격의가 없었으나 날이 가고 달이 썩일수록 점점 아이들에게 정이 멀어지며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만일 장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설사 장자가 무역에 성공을 하여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은 서자 취급을 당하고 저 아이들에게만 상속될 것이니 저 아이들은 장애물이다. 장애물은 일찍 제거해야 할 터이다.'

그래서 계모는 장자가 돌아오기 전에 아이들을 처치할 방법을 생각한 끝에 뱃사람을 하나 매수하여 아이들을 무인도에 버리기로 하였다.

계모는 아이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배를 타게 한 다음 외딴 섬에 내리게 한 뒤 아이들이 새로운 자연풍경에 홀려 노닐 때 사공과 함께 배를 돌려 섬에서 되돌아오고 말았다.

한참을 천진스럽게 섬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진 두 형제는 배에서 내린 해변으로 돌아와 보니 배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해변을 착

각한 것이라 생각한 두 형제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자신들이 버려졌을 거라는 무서운 의심이 들어 먼 바다 쪽을 바라보니 까마득하게 멀리 파도에 넘실거리며 보일락 말락 떠가는 배가 보였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두 형제는 두려움에 서로를 껴안고 목청껏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배는 점점 더 작은 점이 될 뿐이었다. 무서움이 한달음 조리에게 달려왔지만 어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는 마음을 단속하였다. 자신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면 필히 사람들이 찾으려 할 것이며 계모가 마음을 돌려 자신들을 다시 데리러 올 것이라 믿기로 하고 힘을 내었다. 우선은 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 해변에 흩어진 미역을 주워 먹고 산에 들어가 마실 물을 구해보았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못하는 무인도에는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원망스럽고 화가 난 조리였지만 어린 동생과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꼭 살아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리라 다짐을 하며 속리의 손을 꼭 잡고 먹을거리를 찾아 무인도 깊숙이 들어갔다. ♣

- 다음호에 계속





창문을 열면

-오현 스님

책을 펼쳐놓고 창문을 열면
 이름 모를 온갖 새들 이미 다 읽었다고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포롱포롱 날고...
 풀잎은 풀잎으로 풀벌레는 풀벌레로
 크고 작은 푸나무들 크고 작은 산들 짐승들
 하늘땅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하나로 어우러져
 몸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 다 보이며
 저마다 머금은 빛을 서로 비춰 주나니...



이른 새벽에 창문을 열면,
 배롱나무 빛 고운 꽃들이 먼저 눈으로 들어와 안긴다.

늘 그렇듯 따뜻한 한 잔의 물을 마시며 간밤의 채 정리되지 못한 정신을 가다듬고 조용히 앉아 있노라면 이름 모를 새의 제법 큰 울음소리에 사르락거리며 근처의 숲이 깨어나는 기척이 느껴진다.

이어 마당의 푸른 잎들이 맑은 숨을 토해내고 창밖의 모든 사물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크고 작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긋이 감은 눈으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어제와 같지만 다른 세상이 펼쳐져 하루하루 저마다의 기적을 생산해간다.

나무는 나무대로 햇살은 햇살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따로인 듯 따로가 아닌 서로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신성을 만들어내면서.....

무던히도 더운 올 여름의 끝이 언제일런지 싶다가도 선뜻선뜻 와 닿는 바람에 약간의 서늘함이 묻어 있는 길로 이미 가을이 오고 있다는 기별을 반가이 맞는다.

여름은 소란스럽지 않게 자리를 물려주고 내년을 기약할 것이며 우리는 이 뜨거웠던 한 철을 또 기억할 것이다.

삶이란 강렬히 오고가는 사이에 더 여물어지는 것이라고 살아온 시간이 껏땀해 준다.

창문 너머 출썩대던 바람이 햇살과 엉기어 창턱으로 쏟아지는 아침, 기어이 오늘은 바람에 양보한 햇살이 누그러지길 기대해 본다. ♫

신과 함께

- 죄와 벌

혜음
수계사 전수



“ 사람이 죽어 망자가 되면
저승에서 사십구일에 걸쳐 일곱 번의 재판을 받게 된다.
저승의 일곱시왕은 거짓, 나태, 불의, 배신, 폭력, 살인, 천륜을 심판하며,
모든 재판을 통과한 망자만이 다음 생으로 환생한다.
- 불설수생경 佛說壽生經 - ”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소방관 김자홍(차태현)이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김자홍의 앞에 저승차사 해원택과 이덕춘, 강림을 만나고, 이들 넷은 49일 동안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7번의 재판을 함께 한다. 삼차사들은 염라대왕에게 천년 동안 49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면 자신들 역시 인간으로 환생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자신들의 48 번째 망자이자 19년 만에 나타난 의로운 귀인 김자홍을 환생시키기 위해 그를 변호한다.

〈살인지옥〉

판관들은 김자홍이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안위와 두려움 때문에 다친 동료소방관을 구하지 못한 것이 간접적인 살인죄라고 주장한다. 강림차사는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한 것과 한 명을 구하지 못한 것과 생명의 무게가 같냐고 설득하여 변성대왕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태지옥〉

이덕춘이 업경을 통해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살아 온 부지런한 삶을 말하는 중 김자홍이 “돈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해 지옥에 빠질 뻔 했다. 그러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그의 노고 덕에 병든 어머니와 어린동생을 부양함이 인정되어 초강대왕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짓지옥〉

그는 죽은 동료소방관의 자녀와 그의 어머니에게 거짓편지를 준 일 때문에 기소되었다. 거짓편지 덕분에 어머니가 살고 싶게끔 만들고 건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동료의 자녀도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변론으로 태산대왕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불의지옥 〉

자신의 안위 때문에 남을 구하지 않은 자를 벌하는 곳이지만 김자홍은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무사통과하였다.



〈 배신지옥 〉 기소 내용이 없어서 무사통과하였다.

〈 폭력지옥 〉

김자홍은 폭력지옥에서 기소되었다. 그가 고등학생 때 그의 동생 김수홍을 때리는 폭력행위를 저지른 일이 있다. 그는 동생에게 용서받은 적이 없었다. 진광대왕이 판결을 내리려고 망치를 내려치려고 할 때 합산처벌을 요청했다. 합산처벌은 다음 천륜지옥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시 김자홍은 폭력지옥과 합친 가중처벌을 받고 이덕춘과 강림차사는 변호권을 박탈당한다.

〈 천륜지옥 〉

모래사막인 천륜지옥에 도착하였을 때 변론을 듣지 않고 염라대왕은 유죄를 판결했다. 그에 이덕춘은 염라대왕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에도 김자홍의 행위에 피해자가 없다고 했다. 염라대왕은 김자홍의 어머니는 의식이 있었다고 반론을 했다. 그때 수홍이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 현몽하는 모습이 재판장에 그대로 보여졌다. 그리고 염라대왕은 저승법 1조1항에 '이승에서 용서받은 죄는 저승에서 다시 다루지 않는다'로 인해 판결문을 찢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렇게 김자홍은 바로 환생하게 된다.

한편 총기 오발사건으로 김자홍의 친동생 김수홍이 억울한 죽음으로 원귀가 되었다. 김수홍은 형의 재판을 어렵게 만드는 등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된다. 그러나 원귀였던 그가 결말 부분에 다시 귀인으로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천륜지옥으로 차사들이 데려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을 맺는다.



“ 지나간 슬픔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말자
- 에우리피데스 - ”

국내외에서 큰 흥행을 보여 준 신과 함께는 주호민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영화로 제작되면서 '신과 함께-죄와 벌'과 '신과 함께-인과 연' 두 편으로 나뉘어 제작되었기 때문에 두 영화를 모두 관람해야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된다.

<죄와 벌>편은 인간 자체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세태를 꼬집고, 우리나라 정서인 한을 현대 사회 문제들과 버무려 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사후세계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한 영화이다. 상상 속의 지옥을 환타지로 표현하면서 49재를 지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CG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도 있게 표현되어 좀 더 눈앞에서 보는 지옥의 세계를 구경할 수 있다. ↓

차를 우려내는 법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차를 우려내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차 맛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물의 온도나 우려내는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탁한 맛이 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녹차 잎의 카테킨과 탄닌산이 빨리 우려나와 맛이 쓰고 떼어지고 비타민C가 파괴되어 신선한 맛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적당한 온도의 물로 천천히 우려내면 아미노산이 잘 우려나와 차 맛이 구수해집니다. 차의 종류나 여린 잎의 정도에 따라 물의 온도를 맞추어야 제대로 된 차의 맛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녹차는 첫 잔을 1분 30초 정도 우려내고 두 번째 잔과 세 번째 잔은 우려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를 제대로 잘 우려내려면 늘 차를 가까이 두고서 하루 6~7잔은 마셔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차를 대하며 자기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찾고 우려내는 방법도 터득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차를 우려서 마실 때에는 차의 색, 향, 맛을 느껴보아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찻잔을 살포시 감싸 잡고서 잔에 담긴 차색을 보고 가까이 잔을 가져와 향을 맡고 차를 입안에서 머금고 굴리면서 맛을 음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맛있게 우려내기

- ① 끓인 물을 숙우에 붓는다.
- ② 숙우에 담긴 물을 다관에 부어 예열을 한다.
- ③ 다관이 따뜻해지면 찻잔에 나누어 물을 따라 예열을 한다. 이때 다관을 잡을 때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다관뚜껑을 지그시 눌러 따라야 한다.
- ④ 다시 숙우에 끓인 물을 붓고 잠깐 식힌 후 차호에서 적당한량의 차를 덜어 다관에 넣는다. (찻잎 한 스푼에 두 잔이 적당하다.)
- ⑤ 숙우에 담긴 물을 다관에 따른다.
- ⑥ 다관을 잡고 오른손으로 다관 뚜껑을 누르면서 왼쪽으로 2~3번 돌려 찻물이 고루 우려나오도록 한다. (1분 30초~2분 정도)
- ⑦ 먼저 자신의 잔에 차를 조금 따라 차의 색을 보고 차 맛을 감지해 차가 적당히 우려났을 때 차를 찻잔에 따른다. 찻잔을 따르는 순서는 1→2→3에서 3→2→1 다시 1→2→3 순으로 각 찻잔에 세 번을 나누어 따른다.
- ⑧ 다시 차를 우릴 때도 숙우에서 물을 식힌 후 다관에 부어 차를 우려낸다. 만약



다관에 남은 찻물이 있을 때는 찻물을 버려야 차 맛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린 차를 마실 때는 다식도 함께 준비해 담소를 나누며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또한 다관에서 우려낸 차를 다른 숙우나 다관에 담아 손님에게 나누어 드리면 각자 찻잔에 먹을 만큼 부어서 마시면 됩니다.

차를 마시는 일을 차 생활이라 하고 그 차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을 보다 향기롭고 깊게 바라보는 일을 다도라고 할 것입니다. 다도라고 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의식과 같이 엄숙한 분위기를 먼저 떠올리지만 그것은 다도의 본질을 보지 않고 형식만을 중요시 하는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차 생활은 바로 만남입니다. 나와 이웃의 만남이고 나와 나의 만남이자 자연과 우리의 만남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차 생활을 해 봄으로써 느끼게 되는 것이 고진감래로 차의 쓴맛을 느끼고 나면 단맛이 돈다는 것입니다. 진하게 우려진 차를 마시고 난 뒤 조금만 기다리거나 옅은 차를 마시면 입안에서 신기하게도 단맛이 베어 나옵니다. 차 맛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이를 알고 한번쯤 시도해 봄으로써 차 맛을 쉽게 알아 갈 수 있을 겁니다.

옛 시인이 말하길 차 일곱 잔을 마신 뒤에는 하늘을 난다고 표현했을 정도이니 비 갠 하늘처럼 마음이 맑아지고 산뜻한 기분이 들어 개운한 삶 속에 차의 참맛과 차 생활의 참다움이 깃들여질 것입니다. ♫

☕ 차 마시기 좋을 때

- ① 몸과 마음이 한가롭고 고요할 때
- ② 졸음이 오고 정신이 혼탁할 때
- ③ 오랫동안 여행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 왔을 때
- ④ 연못가의 수양버들이 봄비에 젖을 때
- ⑤ 오월의 신록 속에 빠꾸기 울음이 멀어질 때
- ⑥ 소나기가 개이고 무지개가 걸렸을 때
- ⑦ 아름다운 벚이 찾아 왔을 때
- ⑧ 차 꽃이 피었을 때
- ⑨ 홀륭한 차와 마음에 드는 다기를 얻었을 때
- ⑩ 마루에 앉아 흰 구름을 바라볼 때
- ⑪ 산사에 가서 스님을 만났을 때
- ⑫ 과음한 뒷날 몸과 마음이 어지러울 때
- ⑬ 삶이 시들하고 인생이 서글퍼질 때
- ⑭ 가족들이 모여서 정담을 나눌 때
- ⑮ 섬돌 밑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낙엽이 지는 때

- 수안 스님의 차 달력 속에서



허브차
만드는 보살여순애
자석사 교도

자석사 앞마당 정원에 언제부터인가 페퍼민트(박하)가 자라고 있다.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해서인지 내가 처음 자석사에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다.

어느 날 전수님과 함께 티백 페퍼민트 차를 마시다가 앞마당에 있는 페퍼민트를 차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무슨 용기인지 전수님의 응원으로 차 만들 궁리를 하게 되었다.

페퍼민트는 박하향이 강한 허브차의 일종이다.



먼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일반 허브차는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 말리면 되지만 페퍼민트는 습기가 많아 마르기 전에 찌기 쉽다고 한다.

정각사 다도 선생님께도 알아보고 쭉차를 만드는 엄마에게도 여쭙보았다. 그리고 하동에 있는 큰엄마가 차 잎을 집에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 문의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나만의 비법을 개발해서 페퍼민트 허브차를 만들었다.

나의 비법은, 페퍼민트 줄기를 길이대로 꺾은 다음 잘 씻는다. 그런 다음 털어서 나무로 된 상이나 소반에 널어서 물기가 마르도록 둔다. 그리고 잎을 따서 낮은 불에서 잎의 색이 짙어지도록 빠르게 볶는다. 그리고 소쿠리에 널어서 바람에 말린다. 바짝 마르면 차가 되는 것이다.

내가 만든 차를 우려먹으니 박하향 가득 깨끗한 맛을 느끼는 기분은 무척 좋았다. 나 스스로의 비법이 성공한 것이다.

난 허브차 만드는 보살이 되었다. 직접 만든 차는 시중에 파는 차보다 더 좋았고, 내가 만든 페퍼민트 차를 즐겨주시는 보살님들이 계셔서 뿌듯하다.

난 자주 차를 끓인다. 그러면 마음과 몸이 맑아지는 것 같다. 새로운 도전은 결실을 맺어 자석사 차방의 진열장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자석사에 페퍼민트 차향이 가득하다. ♪



어머니 전상서 (49재 추모글)

남익
벽룡사 교도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던 존재. 가장 고마웠던 존재. 공기처럼 고마우면서 귀중해서 감사 할 줄 모르고 지냈던 자식 곁에 60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세상 인연 중에 부모, 자식 간에 가장 큰 인연이지만 모녀간이 제일 큰 인연이 아닐런지요. 때론 친구 같고 때론 고집 센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49일 동안은 아직 이승에 계시니 의지가 되었는데 이제 정말로 보내드린다 하니, 다시 못 볼 그리움에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일 서럽게 운다는데 저는, 어머니가 고생만 하신 모습에 가슴 저립니다. 조자. 화자. 자자. 함안 조씨 87세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 목 놓아 불러봅니다. 엄마. 엄마.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특히 물이 좋아 약수터가 유명한 경북 청송군 안덕면에서 3남1녀 중 둘째로 외동딸로 태어나셨습니다.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에게 시집오셨죠. 시부모님도 안 계시는 집에 만종부로, 큰 살림 하시며, 시동생들 돌보며, 어린나이에 맡은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5남매를 보셨지요.

제가 14살 때 아버지께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 시며 서울로 이사를 결심하셨죠. 그때 엄마는 반대 많이 하셨고 일가친척들도 만류하였고요.

타향생활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식들 교육시킨다는 열정 하나로 이사하셨습니다. 시골 아낙이 도회지에서 어린 자식을 데리고 생활하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시다.

어린시절 아들들은 공부시키고 딸인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것이 언제나 배움에 대한 갈망으로 남아서인지 우리 5남매 원없이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지요.

시장에서 하루종일 장사하시고 밤늦게 집에 오셔서 부엌일에 집안일하며 세탁기도 없던 시절 5남매 빨래해 내시며 참, 묵묵히 그 힘든 일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리 험난한 세월 견뎌 내셨습니까? 어머니 자리는 인고의 자리인가 봅니다.

오늘 우리 5남매는 어머니 작품입니다.

평생 한가정을 위해 부처님께 불공드리고 염주를 손에서 놓는 날이 없었습니다.

벽룡사 초창기 일광서원당 시절 장기자랑 나가 각설이 춤 신명나게 추어 상도 받았지요.

되돌아보면 부처님에 대한 정성과 불공으로 일관된 삶과 낙천적인 성품은 삶의 원동력이 셧어요. 돌아가시기 전 자식들이 '하시고 싶은게 무엇인지' 여쭙니 뜻밖에 "글 배우고 싶다" 하셔서 놀랐습니다. 똑똑한 우리 엄마가 글을 못 배워 생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승 가서 글 배울란다" 하시더니. 엄마, 극락가시면 한글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 힌두어, 티벳어 모두 배워서 좋아하시던 불경공부 많이 하세요.

온몸에 덕지덕지 파스를 붙이고 "육천마디가 다 아프다" 하시지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 많이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극락정토 가시거든 가끔은 자상에 아버지 살려주세요. 동생들, 올케, 이

쁜 막내 사위며 어린 손주들 잘 크게 살려주세요. 장성한 손주들 좋은 배필 찾아 주시고 생전처럼 두루 두루 보살펴 주세요.

막내아들 장가보내고 나서 영정사진 찍는다가에 머리 만지고 곱게 화장시켜드리니 동생에게, "야. 야. 너그 언니가 베니를 너무 빨갛게 발랐다." 하셨는데 이렇게 영정사진을 보니 '우리 어머니가 이리도 고우셨나' 만감이 교차하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이별하시던 손녀 단비가 골라온 편지지요.

부처님 나라 가신 어머니.

제가 훗날 찾아가면 '오나'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 주실 그날을 기약하며 엄마를 편히 보내드리려 합니다. 못다한 모녀의 인연, 내세에 엄마 딸로 다시 태어나 좋은 딸 될게요.

엄마,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오마니반메흥.

딸 올림. ♫



35년 간의 노숙 생활에서 시인의 꿈을 이룬 라이문도!



라이문도 소르비뉴는 70대 노인으로, 브라질 거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노숙자이다. 그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3살에 도시 상파울루로 상경했다. 그곳에서 그는 정원사와 책을 파는 일을 하면서 지냈지만, 1970년대 말에 나라를 곤경에 빠트렸던 군사 독재 기간 동안, 그는 집과 재산을 모두 잃어 줄지에 노숙자가 되었다.

35년이란 긴 노숙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유 없이 욕을 했고, 라이문도는 하루의 대부분을 설움과 외로움 속에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시와 단편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그의 작품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글을 쓰는 시간은 그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가 왜 그렇게 구겨진 종이 조각들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늙고, 일하기를 귀찮아하는 늙은 남자라고 여기고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라이문도는 끊임없이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다. 언젠가 자신의 작품이 출판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찾아왔다.

2011년, '셀라'라는 젊은 여성이 낡은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라이문드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이 남자의 사연이 궁금했다. 그리고 그가 쓴 시 일부를 들려줄 때까지 매일 대화를 했다.

마침내, 라이문드는 그의 시 일부를 그녀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셀라는 그의 작품을 보자 넋을 잃게 되었다. 순식간에 라이문드의 팬이 된 것이다. 그녀는 반드시 세상에 이 작품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장 그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 Raimundo Arruda Sobrinho를 만들었다.



Raimundo

그가 쓴 시가 페이스북에 올라오자,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 거
리로 나왔고, 값비싼 선물과 함께 격
려를 보내며 라이몬드를 응원해 주었
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점점 커져갔
고, 문인 라이문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은 어느새 19만 명이 넘어섰다.



Raimundo

그리고, ‘한 남자’가 셀라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통해 라이문도
를 알아본 것이다. 그는 잠시의 주저도 없이 라이몬드를 만나기 위해
직접 찾아왔다.

그 남자는 바로 오래 전 실종된 줄 알았던 라이문도의 ‘친형’이었다.
두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오랜 시간 동안 감격의 눈물을 펄펄
쏟았다.

그리고 형의 제안으로 형제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게 되었다. 죽
은 줄로만 알았던 형을 만나 다시 함께 살게 되다니... 라이몬드는 정
말 기적 같은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다고 계속 말했다.

라이문도는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목욕과 먼
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 2막을 이어가고 있다.

셀라의 작은 관심은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되
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있다. 셀라의
관심이 없었다면, 라이문도는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지 모른다.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셀라는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뤄낼 수 있
는지 보여주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
는 연쇄 반응을 자아내길 소망해 본다. 📖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다

범일
벽룡사 주교



두 마을이 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또 한 마을은 불평촌이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불평을 쉬지 않는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

언제나 불평속에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감사했고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를 보고 감사했고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고 감사했다.

언제나 감사속에서 인생을 살았다.

불평도 습관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다.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 건너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도 습관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딸린 습관이 된다. ♫



욕망

慾 望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慾 욕심 - 욕

望 비탈 - 망

우리가 사는 욕계^{欲界}는 욕망이 구조화된 세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욕망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타는 듯한 목마름에서 찾는 수분에 대한 욕구와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된 상태에서 찾는 더 맛있는 음료수에 대한 욕망, 그리고 완전한 음료수에 대한 요구는 욕망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레이다.

즉,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생명체의 자기보존의 욕구는 어떠한 이성과 감성보다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생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입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은 때로는 이기적으로 때로는 이타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욕망의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그리고 완전한 것에 대한 요구는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이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초기불교에서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까마^{kāma}, 라가^{raga}, 탄하^{tanha},

찬다^{chanda} 등 네 가지가 있다. 까마가 감각적 욕망이고 라가가 집착적 탐욕이라 할 때, 이런 감각적 느낌^{vedanā}(受)과 집착^{upādāna}(取) 사이에 있는 것이 탄하^{tanha}(愛)이다. 까마, 라가, 탄하가 괴로움의 뿌리로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찬다는 매우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찬다^{chanda}는 행위를 하기 위한 의지나 욕구, 또는 대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심리 현상 등을 가리키기 때문에 ‘의욕’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흔히 의욕은 그 결과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단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욕으로서의 찬다에는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식불교에서 욕망의 생성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 존재는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갖춘 유근신^{有根身=六入處}으로 전개되어 태 밖으로 나온다. 그런데 유근신의 의^意가 자기의식인 말나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력이 구체화된 오온인 유근신을 평생 각자의 ‘자아’로 여기며 살아가고, 아울러 그런 유근신의 근^根과 부딪히게 되는 대상인 경^境을 ‘세계’로 간주한다. 이렇게 근으로서의 자아와 경으로서의 세계로 전변하여 구체화하는 것을 아뢰야식 욕망¹⁾이라 부를 수 있다. 아뢰야식 욕망은 생성의 욕망으로서 자아와 세계를 형성하고, 말나식 욕망은 탐진의 욕망으로서 애증과 취사를 분별한다. 아뢰야식 욕망이 욕계에서 중생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말나식 욕망은 일체 욕계 중생의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1

1) 한자경, 「욕망 세계의 실상과 그 너머로의 해탈-유식불교의 욕망이해」中.

백팔번뇌

百八煩惱

百 일백 - 백 八 여덟 - 팔
煩 번거로울 - 번 惱 번뇌할 - 뇌

- 불교에서 108가지로 분류한 중생의 번뇌.

사찰에 가보면 '108계단'을 비롯해, 108과 관련된 숫자가 많다. 염주의 숫자도 108개가 있고, 절을 할 때도 108을 기본 숫자로 한다. 일천 배를 한다는 것은 108배를 열 번 한다는 것임으로 정확하게 세면, 1000배가 아닌 1080배가 되는 셈이고, 삼천 배는 3000번이 아니라 3240번 절을 하는 것이 된다. 특히 108이란 숫자와 관련해서는 '108번뇌 百八煩惱'를 자주 듣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108번뇌란 무엇인가? 번뇌의 가짓수가 108가지란 의미인 듯 싶는데, 그렇다면 108가지 번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원래 불교에서 108이란 숫자는 매우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108번뇌란 사람이 끊어야 할 번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불교 교학이 발달하면서 이 108이란 숫자의 의미도 더욱 정확하게 산출하게 됐다. 대체로 두 가지 설이 유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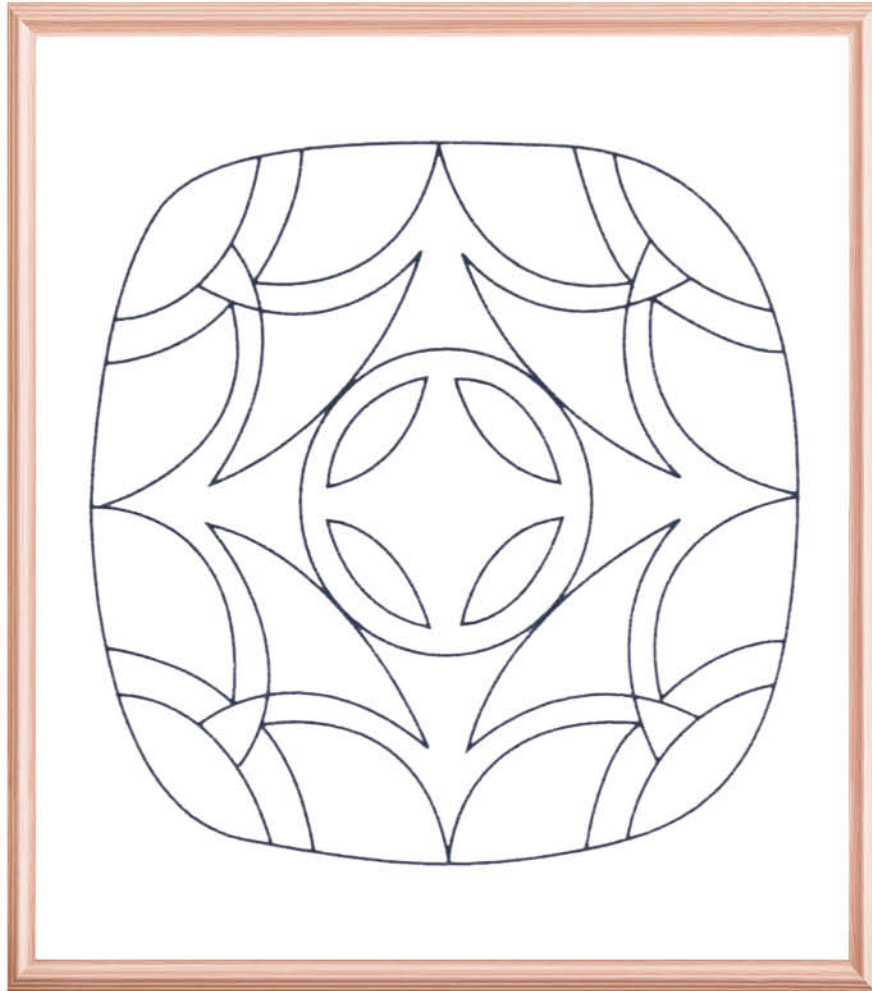
두 가지 설은 모두 '36'을 기본 숫자로 본다. 모든 번뇌를 36가지로 나누고 이것이 과거(전생), 현재(금생), 미래(내생)에 모두 있다고 해서 3을 곱해 108가지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본 숫자가 되는 '36'에 대해서는 첫째, 사람의 감각六根과 감각의 대상六塵이 결합해 여섯 가지 작용, 즉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분별 작용 등을 하고, 이것이 각각 좋고^好, 나쁘고^惡, 중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平 세 가지로 느껴 18가지의 번뇌가 있으며, 또 이 18가지 번뇌는 각각 더러움^染과 깨끗함^淨이 있어 36가지(18×2)의 번뇌가 있다고 보는 견해다.

또 다른 설명은 여섯 가지의 작용들이 각각 좋고^好, 나쁘고^惡, 중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平, 괴롭고^苦, 즐겁고^樂, 괴로움도 아니고 즐겁지도 않은^捨 여섯 가지가 있어 모든 번뇌를 36(6×6)으로 보는 설명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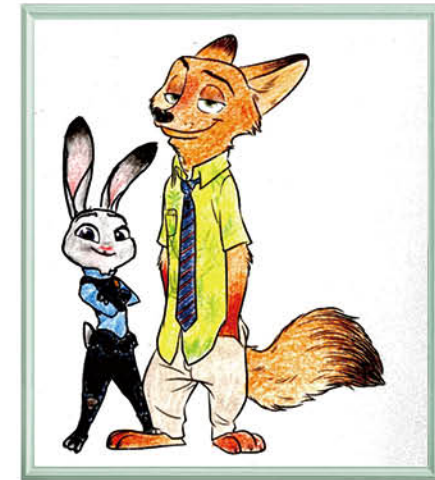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지난 호 독자 솜씨



▲ 울산 이미숙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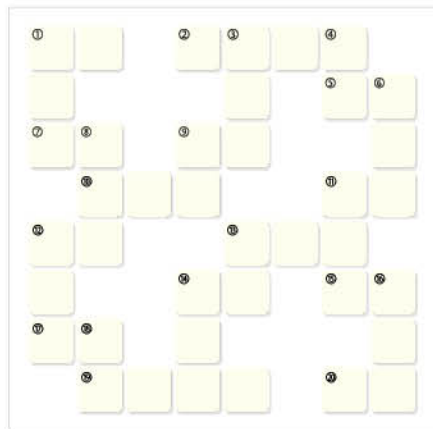
▲ 부산 김정화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가로세로 낱말퀴즈!



가로문제

- ① 마구 댄
- ②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계책
- ③ 임무를 맡아 보는 일정한 기간
- ④ 삼점 이름을 써서 붙이는 표지
- ⑤ 무서워서 살갗이 도톰도톰하게 돋는 것
- ⑥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 ⑦ 사람이 걸터앉는데 쓰는 가구
- ⑧ 두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물레
- ⑨ 어려움의 정도가 매우 큼
- ⑩ 노엽거나 분한 마음
- ⑪ 예상이나 추측이 꼭 틀어맞음
- ⑫ 어머니의 여자 형제
- ⑬ 혼인 때에 함을 지고 가는 사람
- ⑭ 선거에서 떨어짐

세로문제

- ① 오빠와 누이 사이
- ② 주로 사춘기에 얼굴에 나는 작은 종기
- ③ 말아서 해야 할 임무
- ④ 이미 결혼을 한 사람
- ⑤ 옹고 그림 나옴과 못함을 판단하여 가름
- ⑥ 적은 수효
- ⑦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 ⑧ 밤에 불을 때기 위하여 만든 구멍
- ⑨ 부모가 없는 아이
- ⑩ 떠돌아다니는 아이
- ⑪ 차도 중간에 그른 차선
- ⑫ 나쁜 피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함

강민두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해성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해성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드다르마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7(2018)년 9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디자인 (주)디자인지
인쇄 동림기획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편집 후기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니깐.

청명한 하늘과

황금빛 가을 들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 계절 사이로 추석도 찾아옵니다.

넉넉한 마음과

웃음꽃이 가득한 한가위를 기원하면서

온 가족의 희망을 소원합니다.





보살의 자비

자모^母가 사랑하는 갓난아기를 홀로 두고 외출하여
다른 곳에 있더라도 아이가 어머니 젖이 그리워 울부짖으면
비록 수십 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자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젖꼭지에 유즙이 배어나온다고 합니다.

보살이 중생을 대함도 이와 같아서
법계 중생이 모두 평등하다는 대오^{大無}의 경지에서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시며 중생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보살피십니다.
중생들이 고통에 겨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애타게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만 듣고도 중생들의 고통이 어떠한가를
알아차리시고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 환당 대종사 -